

# 기지개를 켜고 있는 철도노조 민주화 운동

이 철 의(철도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의장)

## 94년 파업투쟁의 상처

94년 투쟁이 패배한 후, 6년에 걸쳐 이룩한 철도 민주노조 운동은 하루아침에 거덜이 난 듯하였다. 해고와 전출로 200여명에 이르는 간부들을 빼앗긴 현장은 찬바람만 뽀뽀 불었고 파업 후 복귀 과정에서 갈가리 찢어진 조합원들의 자존심은 전기협 탈퇴 각서를 강제로 쓰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현장 주변의 선술집들이 때아닌 호황을 만나 북적이며 그들의 쓰라린 가슴을 달래 주었을 뿐이었다.

파업이 무너진 현장에는 난폭하고 감정적인 탄압이 휘몰아쳤다. 해고된 지도자들의 외에도 적극적인 조합원이나 노조간부 및 대의원들 140여명이 직종을 바꿔서 타항으로 전출을 당하였다. 총 800여명의 조합원이 크고 작은 징계를 당하였으며 전기협의 모든 회원들이 철도청의 강요 아래 강제로 탈퇴각서를 쓰거나 관리자에 의해 대리탈퇴를 당하였다. 탈퇴각서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은 예외 없이 해고를 당하는 등 중징계를 당하였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눈물을 머금고 스스로의 양심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법에 보장된 노조활동은 완전히 무시되었으며 조합회보를 내거나 총회를 소집하는 등의 정상적인 일상활동마저 철도청의 방해와 징계위협 속에서 얼어붙었다. 노동조합은 거기에 대항하여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는 커녕 전기협의 주요 지도자들을 고소·고발하여 구속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며, 해고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절차도 없이 조합원을 조합원 명부에서 삭제함으로써 철도청의 탄압에 호응하였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 재기의 서막 : 노조 총선거에서의 승리

탄압의 거센 광풍 속에서도 해고되었던 동지들이 먼저 일어붙은 현장을 녹여내기 위한 활동을 개시하였다. 해고자들은 94년 9월 28일 '철도해고노동자회'를 결성하여 현장을 누비며 철도청의 탄압에 저항하고 남아있는 간부들을 규합하였다. 선출된 간부들 또한 '전출자 동지회'를 조직하여 전출간 곳에서 뿌리를 내리려 애썼다. 마침내 이듬해인 95년 2월 25일 해고자, 전출자, 현장간부 등 200여명의 동지들을 규합하여 '철도노조 민주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다가오는 95년 노조 총선거에 대비한 활동을 추진할 주체들이 되었다.

탄압의 마파람이 거세었지만 조합원들도 거기에 마냥 굴복하지 않았다. 비록 징계와 전출의 보복 속에서 숨죽였지만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싸움이 정당하였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으며, 파업투쟁 이듬해인 95년 봄, 3년 마다 치러지는 노동조합의 총선이 다가왔을 때 조합원들은 철도청과 어용 집행부의 갖은 탄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기협 소속의 모든 현장에서 민주파를 지부장으로 선출해 내었다. 그리고 싸움의 여파가 미친 차량 정비창과 객차차 사무소 등에서도 민주파는 눈에 띄는 약진을 하여 철도청과 어용 집행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95년 봄의 노조 총선거를 통하여 우리는 94년 이전의 조직세를 넘어설 만큼 성장하였다. 철도노조의 160여 개 현장 지부 중 약 25개 지부가 민주노조 운동에 합류하고 있으며 9개 지방본부 중 조직이 가장 큰 서울 지방본부의 대의원 중 민주파 대의원이 과반수에 육박하고 있다. 94년 이전에는 전기협이 민주노조 운동의 유일한 중심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노민추가 전국 5개 지역 중 4개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며 전국을 묶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기협이 기관사와 검수원의 두 개 직종으로 이루어졌던 데 비하여 95년의 선거는 객차차 사무소나 정비창, 전기사무소 등 비(非)전기협쪽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비록 간선제의 함정에 걸려 좌절하기는 하였지만 3개 정비창에서 모두 민주파가 판을 뒤집을 뻔하여 철도청과 어용 기득권 세력을 혼비백산하게 하기도 하였다.

## 아직도 길은 멀지만

그러나 선거에서 승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옛날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조합원들은 여전히 탄압에 숨을 죽이고 있었고 새로 선출된 간부들은 경험이 너무 적었다. 민주파의 약진에 경계를 하게 된 철도청은 더욱 더 노골적이고 난폭한 탄압을 시작하였다. 해고된 동료의 생계를 돕자는 노조 지부장 한 사람은 곧바로 직위해제

를 당한 후 해고되었고 구속된 지도자의 이사비용을 모금하였다는 이유로 또 한 사람의 지부장이 감사관실에 불려가서 징계의 협박을 당하였다. 민주과 지부의 모든 홍보물은 관리자들에 의해 거두어졌으며 어용 집행부의 허락을 받지 않은 모든 활동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공문이 며칠 간격으로 현장에 떨어져 조합원들을 협박하였다.

해고자들이나 민주과 지부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는 카메라와 비디오 촬영기를 둘러싼 관리자들이 수 십명씩 물러들어 방해하거나 사진을 찍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준비를 하였고 심지어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 참관하려는 조합원들을 철도공안원이나 전투경찰을 수 백명씩 동원하여 막는 사례까지 있을 정도였다. 이러한 모든 행동이 노동조합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었지만 정부기관인 철도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런 속에서 활동하는 동지들의 마음고생은 말이 아니다. 94년 말 ‘철도해고노동자회’에서 처음으로 열었던 일일 찾집에는 해고자와 전출된 동지들만 참석하였다. 현장에서는 단 한 사람의 조합원도 참석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열린 ‘해고 노동자 활동기금 마련을 위한 호프’에는 그나마 열성적이던 조합원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울분을 달랐다. 그리고 95년 말에는 몇몇 지부들이 노동조건의 악화와 관련하여 총회를 소집하거나 어용 간부들이 지키고 있는 지방본부 향의 방문하여 현장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아직 철도청에 맞서 예전과 같은 폭발적인 투쟁력을 보여 주기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새로 활동을 시작한 간부들은 철도 민주노동 운동이 가지는 특수한 조건과 복잡한 상황을 헤쳐 나가기에는 경험이 부족한 형편이고 무엇보다도 “단결하고 싸우면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고 있는 조합원들의 분위기가 간부들의 어깨에서 힘을 빼고 있다. 그리고 노민추나 전국 기관차 지부장 회의와 같은 조직은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모으기에는 아직 모자라는 점이 많다.

## 어용노조, 철도합리화, 그리고 철도노동자

철도노조의 어용 간부들은 때를 만난 듯이 노골적으로 타락하고 있다. 규약에 따라 해고된 조합원들을 조합원 명부에서 삭제한 그들은 조합원 자격 회복을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벌인 그들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유인물에 자신들의 행적으로 비판하였다 하여 노민추 회원인 지방본부 위원장 후보를 제명하고 다른 회원들은 정권을 하여 노동조합 활동 참여를 봉쇄하기도 하였다.

대의원 대회를 경주의 관광 호텔에서 치른 그들은 지방본부 위원장들에게 고급 승용차

를 선물하여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기도 하였다. 열 대 정도의 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백여명이 쓰기에는 터무니없이 많은 조합비를 다 쓰고도 모자라서 조합 복지기금을 유용하는 편법까지 저질렀다.

94년에 언론을 속이기 위해 철도청과 철도노조의 어용 집행부 사이에 체결하였던 '8시간 노동제 실시'나 '승진 차별에 관한 협약'은 호지부지 없던 일이 되었다. 대신 8,000여명이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관찰하는 감원과 그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가 무차별적으로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96년은 94년과 95년 두 해에 걸쳐 감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1,200명의 감원이 계획되어 있다. 정원 산정방법까지 바꾸면서 실시되기 때문에 실질 감원 효과는 2,000여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올해 말쯤이면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단결과 전기협이라는 조직이 깨진 효과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감원과 더불어 임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작년부터 꾸준히 시도되었다. 임금을 줄이는 문제는 철도의 노동자들처럼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까지 폭발적인 불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두 차례의 시도는 유보되었다. 임금 몇 푼 줄이려다가 철도노조의 기득권 어용 간부들 전체를 쓸어 낼 위험이 더 컸던 것이다. 하지만 올해의 조합 대의원대회가 마무리되면 마지막 유보 조치는 거두어지고 감원과 임금의 인하라는 획기적인 조치가 과감히 실시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노동조합이 불신을 받고 조합원 전체의 불만이 서서히 끓어오르더라도 철도청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여당은 물론 야당들까지도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해 주었으면 경영합리화를 해야지 일년에 2천억 가까이 부채를 누적시키다니 지금 제정신이나?"고 추궁을 당할게 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두 명 중 한 명은 수뢰 혐의로 웃을 벗거나 감옥으로 갔던 관례를 깨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전한 전임 철도청장의 뒤를 잇기 위해 신입 청장은 더욱 지독한 경영합리화 방침을 밀어붙일 것이라 고 생각된다.

철도청은 본래 96년 1월 1일부로 공사체제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안은 95년 정기국회에서 폐기되었으며 공사체제보다도 더 지독한 경영합리화 방침이 철도청에 의해 입안되었다. 노골적인 감원과 노동강도의 강화가 계획되었던 것이다. 공문 한 장으로 현장 부서의 노동자들이 밀려나고 곧바로 일용직으로 채워졌고, 자신들이 정한 정원은 무시되었으며, 모자라는 사람만큼의 노동은 남은 사람들이 더 할 수밖에 없었다. 24시간 노동은 그대로 두고 임금마저 삭감하려는 시도를 공문 한 장으로 시행하려 하자 마침내 현장의 조합원들은 분노하기 시작하였다. 현장이 술렁거리고 작은 집회들이 잇따르자 철도청은 잠시 계획을 보류하였으나 현장에는 더욱 더 악화된 형태

의 근무형태 변경이 시도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노동조합의 어용 간부들은 대개 정년을 앞두고 있다. 위원장 이하 주요 지방본부 위원장들이 정년을 앞두고 있어 어용 간부들의 심사도 착잡하기 그지없다. 세대 교체기에 뒤를 물려줄 인물이 없다고 모이기만 하면 한탄하고 있다. 앞으로 2년 정도면 그냥 내버려두어도 칠도 노조 어용 기득권 세력 내에 공황 상태가 올 것이라는 것은 경력이 짧은 민주파 간부들까지 다 아는 상식이다.

## 96년 칠도노조 민주화운동의 투쟁목표

올해 민주노조 운동의 활동목표는 한마디로 투쟁력과 조직력의 회복이다. 올해 안으로 기반이 강한 몇몇 현장 지부에서는 준법 투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노동조건 악화를 저지하고 감원을 반대하는 싸움이다. 어느 한 곳에서 돌파구를 열기만 하면 투쟁력의 회복은 시간문제라고 판단한다.

몇 차례 불발되기는 하였지만 현장의 간부들은 이미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충돌을 피할 수 없음을 각오하고 있다. 또 우리는 몇몇 기반이 강한 지부를 바탕으로 전국 기관차 지부장 회의를 강화하고 수도권에 민주파 지부들의 조직을 만들어 낼 것이다. 함께 임시 대의원대회를 요구하기도 하고 철도청과의 싸움이 벌어지면 곧바로 공동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노민추는 올해 노동조건 악화와 임금 인하로 인한 조합원들의 불만을 칠도노조의 어용 기득권 세력에게 집중시킬 것이다. 사실 그들은 정부와 철도청의 힘을 빌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반대자들을 현장에서 깨끗이 청소하였다. 하지만 어느새 그들의 자리를 메운 젊은 간부들에게 고생을 할 시기가 또다시 다가왔다.

우리는 올해는 삼층 간선제에 대한 소송으로 직선제 투쟁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직선제 규약개정 투쟁을 대중투쟁으로 발전시킬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내고 공감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다.

94년 이후 한 가지 발전한 점이 있다면 6년여 동안 고립되어 진행되던 철도의 민주노조 운동이 전지협과 공노대, 그리고 민주노총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그 폭을 확대한 데에 있을 것이다. 아직은 크게 힘을 쓰지 못하지만 칠도노조가 민주화가 되는 날은 민주노총에 참여하거나 운수산별을 만드는데 불필요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우리는 과정에서부터 내용을 채워 나가고자 한다. 그런 날을 하루속히 앞당기기 위해 올해는 후퇴만 하던 민주파가 서서히 힘을 모아 반격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